

| 시정방침 |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

- 창의적 시정운영
- 신뢰받는 투명행정
- 활력있는 경영도시
- 참여하는 복지도시
- 아름다운 관광도시



www.gunsan.go.kr

열린시정

열린군산

통권 제159호 2010년 6월 25일

발행처 _ 군산시 공보담당관 / 발행인 _ 군산시장 / 전화 _ 063.450.4226 / 전송 _ 063.452.8159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군산의 발전은 계속 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에 문 동신 시장이 재선됐다.

문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민선 5기에는 지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 복지, 관광, 문화·예술, 체육 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1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민선5기 출범 취임식을 갖는다.



군산의 미래

우리함께 그려요

■ 새만금과 함께하는 새로운 군산

· 새만금과 군산의 신 성장동력 집중 육성

- 새만금 지구와 연계한 광역도시 발전 종합계획 수립
- 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
- 새만금에 항공정비센터 유치로 항공산업 기반 마련
- 새만금 군산 국제공항 건설
- 새만금항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센터 건설
- 새만금 친환경에너지 단지 조성
- 새만금군산 디자인단지(Design Valley) 조성
- 목화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여 관련기업 유치 및 친환경 목화산업 선점

· 취약계층과 노인복지 향상

-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및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 우수한 의료시설 유치로 의료복지 수요에 대처
- 저소득층 학생 해외연수 확대 및 인재육성 장학 사업
- 농촌형 복지센터 건립 및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 아동 필수 예방접종 완전 무료화 사업
- 야간 보육시설 활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

· 원도심지역 재 개발

- 도심재생을 통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
- 원도심권을 근대역사 테마거리로 재정비
- 동부권 개발 - 페이퍼코리아, 내흥동 신역세권 연계
- 해상매립지 (내항 인공섬) 개발
- 경포천 개발 및 새만금과 연결
- 도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 친환경 문화예술 도시건설

- 지역고교의 자립문화 교육지원
- 평생학습형 교육도시 조성
-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지역균형적인 시민문화육구 충족
- 책 읽는 군산 - 독서 문화도시 조성
- 개북동 예술의 거리 확대 조성
- 군산저수지(청암산-생산) 공원화 사업
- 자전거 거점도시를 향한 기반여건 조성

· 관광,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인프라 조성

- 은파관광지에 "물빛 섬"(물위에 떠있는 인공섬) 조성
- 새만금 홍보관 설치 (비응항)
- 유스호스텔 건립
- 금강호 생태관광 테마공원 조성
-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 지역특산물 전시 및 유통센터 조성
- 곤충산업 육성 및 곤충 생태관 건립



꿈과희망이 가득한 섬 선유도에서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세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 2010. 7. 8 ~ 8. 15

신선들이 노닐던 곳 선유도 해수욕장이 7월 8일 선유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장식을 갖는다.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에 위치한 많은 섬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수정같이 맑은 물, 바위 섬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아름다움 전설이 배어있는 섬이다, 길이 1.2km, 50m의 명사십리등 선유팔경은 신선이 감탄하며 즐겁게 놀 정도라고 할 만하다. 장자교 위에서의 바다낚시도 선유도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선유도에는 선유팔경이 있다. 그 중 으뜸 가는 절경은 망주봉. 정상에 올라서면 선유도 주변의 섬과 바다가 시원스레 조망된다. 화려함을 넘어 장엄하기까지 한 선유도의 일몰은 망주봉 정상뿐만 아니라 선유도해수욕장의 어디서도 감동적이다.

자전거 하이킹

- A코스(3.7km)** : 선착장-선유2구-선유도해수욕장-초분공원-장자대교-장자도선착장-장자수석원
- B코스(4.7km)** : 선착장-선유2구-선유도해수욕장-망주봉-신기리-전월리-선유3구-남악리-몽돌해안
- C코스(4.3km)** : 선착장-선유1구-옥돌해수욕장-선유대교-모감주나무군락지-무녀1구-무녀염전-무녀2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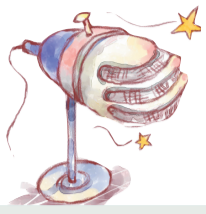
군산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2012년까지 100억 투자 집중 육성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 핵심 정책과제 사업인『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쟁력있고 단기간 육성 가능한 10개 도시(중소도시위주)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집중 투자 육성하여 자전거 이용수요 및 파급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100억원(국비40 지방비60)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전거교육, 인프라, 문화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은파유원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시청~진포초교 간 2.9km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극동사거리~소룡동~세아베스틸 간 9.5km의 출·퇴근형 자전거도로, 구불길, 금강생태습지 및 주변의 11.2km의 레저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 리포터소식 |



해비타트 군산지회 사랑의 집짓기 현장을 찾아서



해비타트 군산지회 사랑의 집짓기 현장을 찾은 날은 비가 내린 토요일 오후였다.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개정 문화마을에서는 사랑의 집짓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자인 한솔PNC/인티큐브 직원들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공구세트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의 집짓기 현장에서는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보다 더욱 값진 송고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송글송글 맺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리포터 - 윤남옥

시민 정보화교육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군산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군산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교육장을 찾아갔다.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엑셀, 포토샵, 스위시맥스 등을 교육하고 있었다. 시립도서관 교육장을 찾은 날은 더운 날씨였음에도 30석 좌석이 꽉 찰 정도로 교육생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한글, 문서작성을 배우는 연령층도 주부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안경 너머로 모니터를 보시며 공부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배움의 현장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은 www.edu.gunsan.go.kr에 접속하여 시민 누구나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리포터 - 김선미

군산 밤호박 인기몰이



군산시가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밤호박이 주부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산지역 32개 농가에서 연간 70톤이 생산되는 밤호박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도시주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것.

군산 청정 토양에서 자라나는 밤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거무칙칙하지만 속살은 노랑고 달콤하고, 밤이나 고구

마 맛이 나면서도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밤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감기예방, 피부미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크다고 한다. 달고 부드러운 맛에 영양까지 골라들어왔으니 이보다 더한 행운이 또 있을까?

리포터 - 고덕자

게시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 7월분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9월분 (주택분 1/2, 토지)

■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신분

■ 납부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http://www.wetax.go.kr>)

병원에 가실 때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해주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금(과태료) 납부 대상입니다.
- 나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63-450-8851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군산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건전지를 8월말까지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한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거한 폐건전지는 학교별로 계량하여 우수학교 및 우수 지도교사 표창수여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오는 7월 17일은 제62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 17(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도록 합니다.
- 심한 비·바람(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약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자 | 원 | 봉 | 사 | 한 | 마 | 당



수송금호어울림 봉사단

수송금호어울림봉사단(단장: 박현미)은 군산 수송금호어울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생적 봉사단체로 2010년 4월 18일에 창단된 가족봉사단이다. 수송금호어울림봉사단은 현재 부모와 자녀 총 104명의 회원으로 4월에 '대야오성문화대학'에서의 급식지원활동을 시작으로 수송동 근린공원의 환경정화활동을, 지난 5월에는 대야면에 위치한 '해오름복지재단'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송금호어울림봉사단은 앞으로 불우이웃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활동, 사회 복지시설 정기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이벤트



경암동

굿마트 (대표양상호) 사랑의 장학금 전달

군산시 경암동에서는 지난 5월 경암동에 거주하는(굿 마트 운영) 양상호씨가 관내 거주하는 성적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및 부식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 및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나운3동

자매결연기관(정릉3동) 군산새만금국제 마라톤대회 참가

나운3동에서는 제7회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자매결연기관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을 초청 마라톤대회 참가 및 우리 지역 기념품 및 특산품(쌀, 흰찰쌀보리) 전달하고 우리 지역 생막걸리 시음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신풍동

희망근로 프로젝트 벽화사업 완성

신풍동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벽화작업이 완성 됐다. 신풍동에서는 지난 4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인력을 활용해 월명산 입구에 있는 월명 아파트 담장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완성된 담장은 월명공원을 다니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있다.



성산면

출향인의 고향사랑

성산면에서는 지난 18일 군장대학에서 성산면 출신인 (주)대창 조시영 회장의 후원으로 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대창은 성산면과 자매결연 업체이기도 하여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역 어르신께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신동

나눔의 기쁨, 사랑의 쌀 전달

해신동 노모회 경로당 회원들은 지난 18일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노모회 회원들이 그동안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며 작지만 서로가 가슴으로 느끼는 소중한 큰 사랑을 통해 훈훈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옥산면

남내마을 가꾸기 선포식

옥산면에서 지난16일 옥산면 남내마을이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을 열어가기 위한 '남내마을 구불길 마실터 마을 가꾸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구불길 마실터 체험관' 조성은 전통 초가 한옥 체험관을 짓는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나운2동

독거 어르신 돌봄 봉사 결연식 개최

나운2동에서는 지난 23일 위싱턴 레스토랑에서는 세아베스틸 다물단(단장 김동식)과 주공4차아파트 독거 어르신12명과 가족을 맺는 결연식을 가졌다. 결연식후에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가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나운3동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인사하기 캠페인 전개

나운3동에서는 친절·질서·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 확대 전개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22일 동주민센터에서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보건소 사거리 외 1개소에서 자생단체 회원 및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10년 여름학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모집

군산시 여성교육장에서는 2010년도 여름학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2010. 7. 19 ~ 8. 13(주 2~3회, 1일 2~3시간)
- 모집기간 : 2010. 6. 21 ~ 7. 16
- 교육과목 : 홈패션, 양재, 퀴트, 규방공예, 여름철벌식, 천연화장품, 키네시오 테이핑,공인중개사, 예쁜글씨 POP, 퀴트
- 신청방법 : 여성교육장 방문 접수 및 전화접수
- 접수및문의 :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442-1203,450-6578)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지난 2008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군산시에서도 사용기간이 경과해 사용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항생물질로 인한 하천과 호수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회수처리 한다.



| 군 | 산 | 시 | 의 | 회 | 안 | 내 |

제5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의·처리 -



군산시의회가 1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14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5대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한 금액과 예비비가 조정되어 60억원이 계상, 시의회에 상정됐다.

특히 17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래 범 의장은 ‘그동안 의장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는 제5대 군산시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은 최근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서해본부 폐지철회촉구 건의문을 통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역차별적 발상이라며 폐지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폐원식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시의원 -제6대-

가 - 선거구 나 - 선거구



고석강



김경구



강태창



신경용

나 - 선거구

다 - 선거구



설경민



진희완



김영일



조부철

라 - 선거구

마 - 선거구



김성곤



김종식



정길수



박정희

마 - 선거구

바 - 선거구



최동진



김종숙



최인정



유선우

사 - 선거구

아 - 선거구



한경봉



강성욱



이복



김우민

아 - 선거구

비례대표



서동완



엄문정



함정식



채경석

한국가스공사 서해본부 폐지 철회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 만장일치로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군산시의회가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충청지역 본부로 흡수통합하려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시의회는 서해본부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규모면에서 전국 8개 본부중 3위인 전북서해본부를 7위에 불과한 충청지역 본부에 흡수통합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군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은 산업기지 확장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량이 전년대비 51% 증가하였고, 또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으로 도시가스 공급량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유독 전북서해본부만 통폐합 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지역차별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전북서해본부의 충청본부로의 흡수통합은 전북지역 가스안전사고지대화는 물론 연간 1천억원의 예산집행권과 250여명의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의 유출로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시조 갈매기

거친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비상하는 모습의 굳센 기상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려는 군산시의 높은 이상과 진취적 기상을 상징.



|시화 동백꽃

꽃잎이 붉어 "여심화"라고도 하며 속수술이 노랑색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서리와 눈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꽃으로 우리 지역 해안과 월명공원에 많이 자생하며 평화와 정절을 숭상하는 시민 정신을 상징.



|시목 은행나무

부채모양의 푸른 잎과 열매는 약재로 널리 쓰이며, 종해가 없는 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청정한 나무로써 우리 지역에 가로수와 정자나무 등으로 많이 심어져 있으며,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프로야구 군산홈경기

7. 16 ~ 7. 18 기아:sk
8. 6 ~ 8. 8 기아:두산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달의 기증유물

- 명 칭 : 6.25전쟁 직후 군산시내 서민들의 사진
- 수 량 : 63점
- 기증자 : Keith V. Eisberg(현 미네소타 거주 6.25전쟁참전군인)

금번에 기증한 유물들은 군산비행장 확장공사에 참여했던 주한미군 808공병 항공대대 Keith V. Eisberg (77세, 현 미네소타 거주)씨가 군산비행장 인근의 한국인 마을과 군산시 내항 및 중앙로변의 한국인 생활을 촬영한 칼라사진 63점이다. 기증자인 Keith V. Eisberg씨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 한국의 발전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는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는 자료로 사용되길 희망한 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사진속의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사진 배경은 전쟁직후인 1953년(추정) 백년광장 인근 조선은행이다. 사진속의 소년을 아시는 분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450-42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